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예배	자녀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4월 3일 (제1143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행복하십니까?

38년을 회고하면서 ‘과연 나는 행복했었는가?’ 나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나에게 답했다. “나는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다.” 다시 물었다. “언제 행복했는가?” 나는 답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나는 물 없는 사막, 눈 덮인 산야 같은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고 내가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비록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세월을 왔지만,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그 행복감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 행복이 외로움도 견디게 했고, 아픔도 이기게 했고, 힘든 세월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자원하여 다시 이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의 노예로, 하나님으로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려고 달리지 않았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좋아서, 나를 통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행복은 종착역이 아니다. 삶의 곳곳에서 만나는 간이역 같은 것이다. 낮설고 물 설은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었겠나마는, 나는 그 와중에도 행복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 때문이었다. 그들을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쳤다.

사람들은 행복이 목적이 되어 정신없이 달린다. 행복해지기 위해 정작 행복의 순간을 놓친다. 간이역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낭만을 놓치는 것처럼. 간이역이 불품은 없지만, 거기에 소소한 낭만이 있듯 행복도 종착역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행길 여기저기에서 작은 것으로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한 젊은이가 행복이 무엇이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해줬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느끼는 행복, 진짜 값지다. 그러다보면 종착역에서 성취라는 기쁨을 만나게 되리라. 행복을 위해 달리지 말고, 달리면서 행복을 느껴보자.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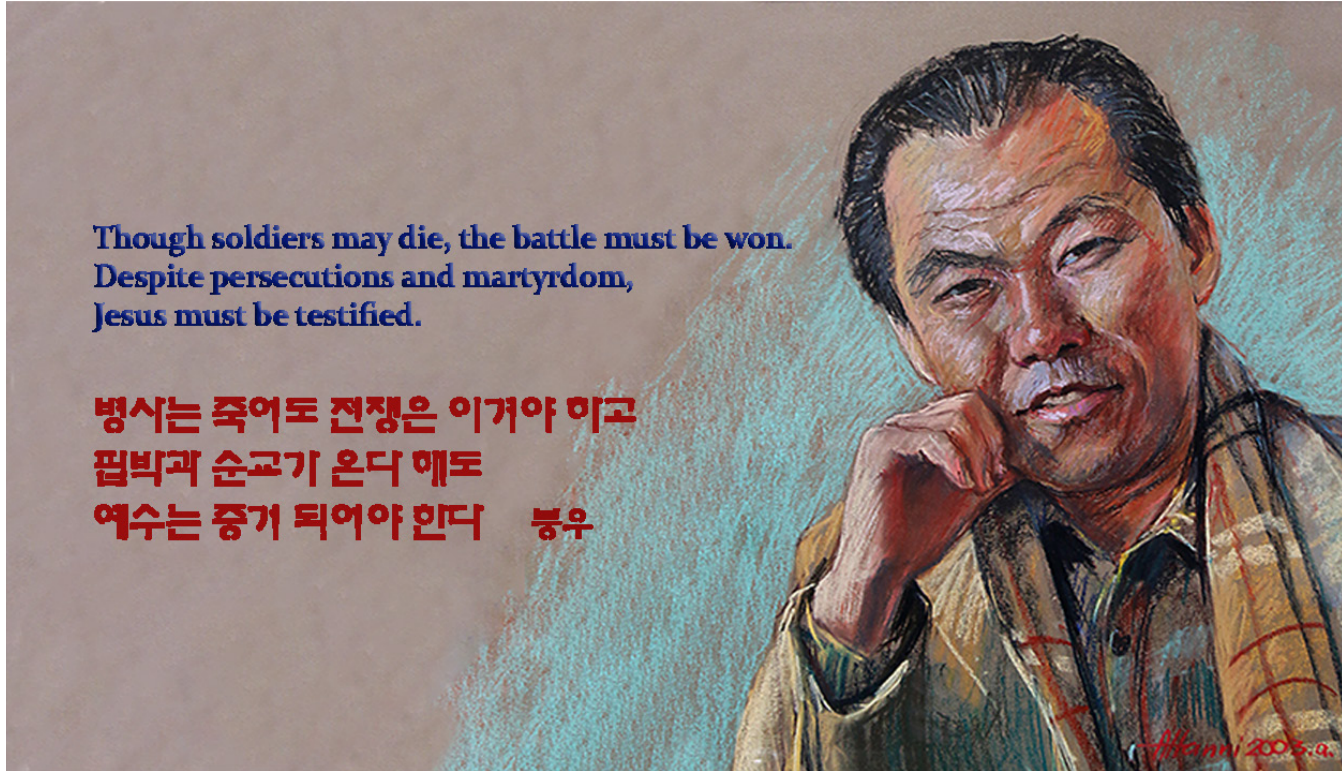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하고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는 증거 되어야 한다!”

이 슬로건은 목사님의 목회철학이자 어찌보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선교의 역사를 응축한 표현이기도 한다.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지구촌 어디에선가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는, 혹은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선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교자의 피로인

져나갔다. 교회의 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기 위해 헌신하는 크리스천의 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화요일, 17년간 일본 나가노에서 목회하시던 강일석 목사님이 60세의 나이에 소천하셨다. 우리 교단에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 수고를 마치고 안식에 들어갔다. 이는 교단적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책무가 있다고 믿는다.

도 바울이 그날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달려갈 길을 다간 것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쾌락을 몰라서, 쉴 줄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부도 누려봤고, 정치까지 꾸꾸며 들쭉거리면 서러울 정도로 세상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먹어도, 먹어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다예수를 만났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나는 그러기에 지금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든 편안함을 거부한 채



해 선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된 적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 그 피를 지양분 삼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강력히 증거 되어왔다. 병사가 죽는다고 전쟁을 멈추고 항복한다면 남는 것은 역사적으로 역대 패전국들이 당해왔던 수모가 보여 주듯, 전 국민이 승전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단결시켜 군사강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모습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핍박과 순교가 극심하여 예수 증거의 사역을 멈춘다면, 악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암울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순교자가 나올 때마다 교회는 더욱 왕성해졌고, 선교의 역사도 그 왕성한 힘으로 세계를 향해 줄기차게 뻗어

목사님은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 “만약 우리가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다.”라는 주제로 강일석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교단에 전하시며 유족을 위로하는 한편,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말씀하셨다.

“일본 나가노의 강일석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영생과 영멸의 두 갈래 길로 갈라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주시는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보상해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사

주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퇴를 이야기하지만, 주의 종이 무슨 은퇴입니까? 아니 주인이 그만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종이 제 맘대로 그만둬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만 쉬라 하실 때까지 나는 이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주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하는 나의 믿음만은 본받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을 받고 믿음의 전당에 새겨질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핍박과 순교가 온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0:46~52)



내가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119에 전화하면 소방차나 앰블런스가 달려오지요?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와서 도와주지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전기제품이 고장 났을 때, AS센터로 전화를 걸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묻고 엔지니어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주지요? 역시 당연한 겁니다. 회사는 제품을 팔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제가 사업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술이 잔뜩 취해 통행금지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어머니를 본체만체하고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쫓아 들어오셔서 “애야, 무슨 일 있니?”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다 큰 놈이 울어대니 얼마나 황당하셨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니까? 저는 “부도나게 생겼어요.” 딱 한 마디하고는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가 타셨는지 “걱정마라. 네 아버지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해결해줄게. 몸상한다. 술 그만 먹어라.” 저를 다독거리셨습니다. 물론 다음날 문제가 상큼하게 해결되었지요. 저를 낳은 우리 어머니니까 제가 땀방울 부린 거고, 우리 어머니니까 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신 겁니다. 요즘 제 신경은 온통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 드네프로에 있는 슬라바 목사님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저는 그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이든 말해라. 다해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동지요, 저의 동역자요, 우리교회의 선교사이기에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요 15:7).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당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식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119에 전화해놓고 불이 났는지, 어디가 아파 구급차가 필요한지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있으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구해야 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여리고 길목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그는 목청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셔서 “네가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바짝 때 달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다”(막

10:51)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매오가 소리 지를 때 이미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신 예수님은 그와 대화해보지 않고도 “그는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다 아셨던 것처럼. 다 아시지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눈 뜨길 원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 6:8)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 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구하길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 구하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역으로 하면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입니다”(약 4:2)라고 딱 못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다 알면서도, “뭘 사줄까?”하고 꼭 묻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 3:5)고 물었습니다. 왕이 될 당시 솔로몬은 20세였습니다. 아직 국가통치에 대해 알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7~9). 솔로몬

의 답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영광도 함께 주사 열왕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2000년 우크라이나에 처음 갔을 때 먹을 것이 변변찮았습니다. 빵 하나 사려고 해도 줄을 길게 서야 했으니 돈을 가지고도 굶는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항에 전통 빵을 구워 내오고 풍성한 만찬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느냐고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 6:11)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주신 주님이

째
합
니까?

No! 이

렇게 구체적

이고 세밀하게 구

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입

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러

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관 기관이 잘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손대는 자마다 병에서 낫게 하소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모세는 “여호와여, 고기 주세요.”라고 했고, 아들이 없어 끝탕하던 한나는 “아들 주세요.”라고 했고,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수로보니에게 여인은 딸의 병 낫기를 구했듯이, 당신도 지금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괜히 품 잡지 말고, 괜히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집 주세요.’, ‘직장이 없습니

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줘라. 어디에 쓰든 무슨 상관이야?’ 남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아버지시라 그러실 수 없는 겁니다. 둘째,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는 말씀 앞에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곧 죄 가운데 있는 자는 구하여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사 1:15), “여호와와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잠 15:29). 죄악을 인격화하면 마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도 마귀의 자녀에게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잠 1:26~28)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건만 도중에 포기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기 때문입니다. 2m만 더 파면 금맥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멈추는 어리석은 자처럼 말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처럼 기필코 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119에 전화 걸어야지, 118에 걸면 안 됩니다. 경찰을 부르려면 112에 전화해야지 111로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자에게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당신의 말에 귀를 활짝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 자리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가난이 지긋지긋해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알게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24).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혹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더라도 지도가 있기에 어렵지 않게 목적지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지도로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 바로 북극이나 남극 혹은 사막지역은 지도 한가지만을 가지고 가서는 길을 잃을 경우가 태반이다. 지도상에 분명히 언덕이었는데 그곳에 가보면 평지가 나올 수 있고 혹은 평지였는데 계곡이 되는 경우도 있다. 날씨변화가 너무 심하여 지형이 바뀐단다. 그래서 이런 험한 지역은 반드시 나침반이 있어야 찾아갈 수 있다. 나침반을 보고 길을 가면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이다. 지도를 보면 어디쯤 가면 무엇이 있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 텐데 나침반을 보고 가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나침반을 보고 가면 어렵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나만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럴 때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또 저털 때는 물질과 인맥들을 동원하여 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 그런데 이런 나만의 지도가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으로도,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인맥이나 권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이런 불가항력일 때 나의 나침반인 예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지교회에서 인천교회로 발령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여 집사의 상담을 받았다. 어떤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웠다. 그가 이야기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감동도 없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도 저 예수 믿을 거예요.” 그때 받은 감동이 아직도 나에게 생생하다. 그리고 지금 17년 정도가 지난 지금 그 여 집사는 너무 신앙적으로 멋있는 남편을 만났고, 양쪽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열왕기하 5장 1~14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했다. 이성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가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하고 일곱 번 요단강에 몸을 씻으니 깨끗함을 받는 축복을 받았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그 나라가 존폐의 위협에 빠졌다. 불가항력의 상황이다. 불가항력일 때는 기도라는 비장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축복이 그 나라와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시42:5).

장영국 목사

:: 성경에세이 ::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보게!
우리 장로들은 요즘 만나면 손주 얘기하기에 바쁘다네. 손녀가 이렇게 했다는 둥, 손자가 저렇게 했다는 둥 천하에 혼자 손주를 둔 것처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지. 다른 말을 하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가 손주 자랑을 하더라고.

요즘 주식이 대세더라고. 초등학교까지 주식을 한다고 하니 주식열풍이 아니라 주식광풍이라 해야겠네. 그네들은 앞면 주식 얘기만 하지. 어떤 주는 올랐고, 어떤 주는 내렸고, 어떤 주가 유망주고... 오직 주식밖에 모르지. 온종일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주가를 확인하고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한숨을 쉬지.

연애하는 자들을 보게.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하더라고. 그 사람이 뭘 해줬다느니, 그 사람이라 어딜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느니... 이렇듯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늘 말을 하게 되어있네.

여보게!
그렇다면 자네에게 물겠네. 요즘 자네가 주로 하고 다니는 말이 무엇인가?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인가? 부동산인

가? 아니면 자식인가? 아니면 노후준비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자네는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나에게도 물어봐 주게. 나는 바로 답할 수 있네. 나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관심사는 ‘예수’요, 주로 하는 말도 예수에 관해서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니 그 말만 나온다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백문백답이 예수요, 천문천답이 예수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방법은 내가 주로 무슨 말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돌아보면 되네.

자네는 주로 무슨 말을 하나 꼼꼼히 생각해보게나. 너무 세상적인 것이라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관심을 갖게나. 육적인 것이야 다 썩고 사라질 것이 아니겠나!

朋友

:: 아름다운 인생 ::

주께 맡긴 삶

‘드디어 개강이구나!’ 지원서를 낸 지 2년 만에 신학원이 개강을 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하다. 더불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기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면에서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긴장감도 있다.

그때마다 나를 다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다. 순종하면 명령권자가 책임지게 되어있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제 이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을 수행하는 자다.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100% 순종하며 나아가자.’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평안했다.

그런데 얼마 전, 방송실에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언급하시다가 저를 보시고 “누가 알아? 네가 우크라이나에 갈지?”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화

답했다. 이미 나는 이은성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아멘이 가능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내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이 가장 편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책임까지 지어주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내가 신학도로서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오직 ‘예’ 하는 순종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는 변화할 것이라 믿는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37:5~6).

이은성



:: 생명의 말씀 ::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

코로나를 계기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시는 성도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심방을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심방을 매물차게 거절하신다. 이유인즉슨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열심에 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다. 이해를 시켜드리려 말하려 해도, 내가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혼잣말만 되풀이하시다 냉정하게 끊으셨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 터라,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하기에 설명이 필요했지만, 그 굳게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내 노력의 열매를 금방 거두고 싶겠지만, 신앙생활이란 멀리 보면서 동시에 가까이 보고 인내해나가야 하는 천로 역정이다. 그러기에 그 성도에 대해 더욱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날을 보겠건만 말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명언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데 살다보면 반대의 말도 기억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바로 ‘낮게 날아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명제

이다. 멀리 보는 원대한 시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영적 원근감을 상실할 때는, 현실감각 없는 이상주의자, 또는 현실 도피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변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의 원대한 계획과 소망은 지금 이 순간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온다. 과정을 비약하여 열매만 성큼 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원근통시(遠近通示)적인 말씀을 하신다. 멀게는 70년 후 해방의 희망을 가지지만, 가깝게는 지금 현재 포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명령이셨다(렘29:5~10).

높이 날다가도 가끔은 낮게 날아 나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이다. 나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나 자신을 객관화하여 나를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을 향한 포로생활의 계획들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다(렘29:11).

송직화 목사

기도와 기적



미국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고 생사의 기로를 헤매는 십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임상실습을 나온 의과대학생 한 명이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대생은 소년의 의무기록을 보고 상태와 나이를 확인한 다음, 침대 옆에서 소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영어문법의 동사 변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소년이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의대생은 며칠 동안 빠짐없이 소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화상 전문의들이 회복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판정을 내렸던 이 소년의 상태가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면서 완전히 고비를 넘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음에 의료진 모두가 놀랐고, 다들 이 소년의 회복 원인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얼굴과 사지의 붓대를 풀던 날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의 대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 형이 들어와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다음 학기 영어시간에 배울 동사 변화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놀랐어요! 그 형은 ‘네가 나아서 학교에 돌아가면 이것들을 알아둬야 공부에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확신했죠. ‘아, 의사 선생님들이 내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붓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나에게 다음 학기 영어를 가르쳐줄 리가 없지!’ 그때부터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봉사한 의대생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도와 구제는 누군가에게든 희망이 되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지난해 12월 5일, 저는 코로나백신 접종 2일 후 급성후유증이 발생하여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치명률 90%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달고 무의식상태에 빠졌습니다. 입원 다음 날 병증이 너무 심하여 오늘을 못 넘긴다면서 의료진은 가족들을 불러 사망 전 얼굴 한번 보시고 장례 준비

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의사인 만큼 의료진들도 특별히 많은 전문의사 10명이 모여 긴 진료협의를 거쳐 의료의 한계 상황을 결정하였습니다. 캐나다에 유학 중인 제 딸이 급거 귀국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 나이 만 62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의식이 없었으므로 기적적으로 소생한 후 화급한 소요사태가 있었음을 깨어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의들이 모여 힘들다고 의료의 한계를 선언하였기에 의사들에게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낙담과 절망 속에서 애절한 심정으로 총회장 이조석 목사님께 이 급박한 상황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당장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만 대학병원 중환자실은 의사이거나 직계가족 외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통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제 동료 의사인 김재영 원장을 부르시고 김재영 원장에게 안수 기도하시며 이대로 지금 중환자실로 달려가 생명의 불꽃이 경각에 달린 제게 안수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블루투스 안수기도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김재영 원장은 목사님의 지시 그대로 중환자실에 들어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머리를 통해 김재영 원장의 두 손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안수기도를 통해 저는 기적적으로 소생하게 됩니다. 나는 10여 일 후 의식을 회복하고 의료진을 놀라게 하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죽어가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퇴원 후 제 폐의 X-RAY와 전산화단층촬영(CT) 영상들을 보았습니다. 폐의 90%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내가 보아도 치명률은 90% 이상의 상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시40:2). 다윗의 찬송시로써 찬양을 대신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시작이었습니다.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옷 입는 일도 누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걷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걸음마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중국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합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수많은 병들이 지뢰처럼 널려있는 위험 속에

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 힘으로 건강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도 그랬습니다. 오만이고 교만인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بول런스에 실려 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한 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기도 부탁을 하는 분은 절박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버겁고 탈진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심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막9:29),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약5:15~16).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 전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마와 간난신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친지, 그리고 교우들과 새신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간구와 기도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중심교단의 성도들의 귀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메디스팀 즐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가치와 철학

요즘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앱이 하나 있다. 카카오 회사가 운영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 앱을 사용하다 보니 카카오톡은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 선물기능, 페이기능 및 여러 핀테크 기술 접목을 통해 네이버와 함께 국내 최고 IT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화려한 성장을 이끈 카카오 회사 대표의 생각과 철학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네이버 vs 카카오’라는 책을 통해 그들의 가치와 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 2) 무엇이든 본질만 남기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본다.
- 3) 나보다 동료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
- 4) 스스로 몰입하고 주도적으로 일한다.
- 5)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모두 훌륭하고 멋지지만, 그중에서도 마지막 5번째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바로 세상을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이다. 잘 알다시피 선의 반대는 악이다. 세상을 악하게 가 아닌 선하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덕목과 닮아 있다.

그들이 그 회사를 통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려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각자가 세상을 선하게 바꿔 가야 한다. 각 처소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고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마5:14~15).

장명훈 집사

